

“고창군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진에 최선”

농업진흥과 최두영 과장, 2016 국가브랜드 대상 특별 공적상 수상

고창군 농업진흥과 최두영 과장이 2016 국가브랜드 대상 '지역농식품 브랜드 활성화 실무 부문'에서 공적상을 수상했다.

최두영 과장은 최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진행된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지속적인 농식품 브랜드 관리 노력으로 국가브랜드 육성을 도모해온 점을 인정받아 특별 공적상을 받게 됐다.

이 상은 국가브랜드 대상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여 대한민국 산업·지역·문화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하고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두영 농업진흥과장은 “고창군의 훌륭한 브랜드 발굴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으로 인정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고창군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고창군은 ‘황토배기 수박’이 7년 연속, ‘복분자 선연이



(좌)중앙일보 김동섭 상무, (우)최두영 농업진흥과장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고창군은 복분자 특구지정을 2017년까지 연장 승인받고, 복분자 생산업체에 실시, 복분자 판로 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 고창 복분자 산업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고창 황토배기 수박

은 최고의 당도를 자랑하는 수박생산에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1인 가족 증가에 대응하는 소과형의 수박 출시를 준비하는 등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선정위원회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대병원 성형외과·재활의학과 의료봉사활동

전북대병원 성형외과와 재활의학과가 무료 수술과 검진 등 의료봉사활동으로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 8일 재활의학과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공동으로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은 도내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및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또한 양경무·이내호·노시균 교수 등 성형외과 의료진과 간호사 18명의 의료진에 나서 노인 4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 및 상안검 수술을 실시했다.

성형외과는 20여년 넘게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상안검 수술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재활의학과에서는 도내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 건강검진 및 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박용주 기자



전북동부보훈지청, 전주자원봉사센터와 이웃사촌 빨래터 행사

전북동부보훈지청은 8일 전주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재가복지 대상자를 위한 이웃사촌 빨래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독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재가복지대상자 가에서 겨우내 묵은 이불과 침구, 커튼 등 50여 채를 수거해 이동세탁차량으로 세탁과 건조를 마쳤다.

전주자원봉사센터의 '이웃사촌 빨래터'는 연중 수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지역사회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의 청결한 생활환경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 덕진소방서, 국회의원 선거 안전관리 총력 지원

전주덕진소방서는 오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안전관리 총력 지원체제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소방서는 지난 5일까지 관내 투·개표소 설치장소 12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이중 5개소에 대해 소방시설 불량 등 안전관리 마찰사항은 시정 조치했다.

또한 선거전 투·개표소 주변 소방출동로를 확인, 긴급출동태세를 갖추고 개표가 이뤄지는 덕진 실내체육관 및 완주 문화체육센터에는 소방차량을 전진 배치해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선거 당일은 구급대를 동원해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들을 투표장까지 왕복 이송하는 투표 편의를 지원한다.

한편 덕진소방서에서 소방활동을 보조하며 군생활을 대신하는 의무소방원 10명은 지난 8일 사전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마쳤다. /인진수기자



삼양그룹, 자연사랑 파라마음 글그림 축제 개최

삼양그룹은 지난 9일 휴비스 전주공장 대운동장에서 '제19회 자연사랑 파라마음 글그림 축제'를 개최했다.

'자연사랑 파라마음 글그림 축제'는 삼양사계, 삼양화성, 휴비스, 환경보전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환경축제다. 지난 1996년 시작돼 매년 학생과 학부모 1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성장했다.

현재 기업과 지역이 환경의 소중함을 함께 생각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나의 초록빛 자연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초등학생들은 그림 그리기, 중학생들은 글짓기 부문에 참가했다.

또한 주 행사 이외에도 페이스 페인팅, 쫄쫄락 비누, 에어 바운스, 트램폴린, 로데오, 낙하산 놀이, 미니 바이킹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삼양그룹 관계자는 "이번 환경이벤트에서는 환경부장관상, 새만금지방환경경쟁장상, 환경보전협회장상, 삼양그룹 회장상을 비롯해 총 326명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한다. 입상자 발표는 오는 29일 삼양사, 삼양화성, 휴비스,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시상식은 다음 달 11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며 "지라는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글과 미술에 대한 꿈도 심어주고 싶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전주 덕진경찰서,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교실 개강

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전주사대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반기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열었다.

운전면허교실은 오는 6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 8회에 걸쳐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전주사대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덕진경찰서 외사계 경찰관과 전문학원강사가 교육을 지원한다.

덕진경찰서 외사계는 경찰의 4대 사회적 근절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다문화 가정 가정폭력과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적 범죄예방 및 대응 교육과 상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베트남 국적의 황미(26)씨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운전면허가 필요했는데 경찰서에서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해 믿고 참석했다"며 "운전면허 화과시험도 한국어로 응시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덕진경찰서 윤혜성 외사계장은 "경찰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인진수기자

전주 완산구, 상반기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과정 개강

완산구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8일 '가족공예지도사' 및 '절경플래이 2급과정' 수강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교육생들은 절경공예의 일종인 절경플래이 2급 과정과 가족을 이용한 절경공예, 필통, 팔찌 등을 만들 수 있는 가족공예지도사 과정을 15주, 10주 각각 수강하고 자격증 취득 후 문화센터 등의 취업이나 공방, 홈스쿨 창업에 도전하게 된다.

여성직업능력 개발교육은 관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교육참여자들에게는 수강료의 80%를 지원하고 전문 강사진의 지도 아래 상·하반기 각 2~3개반씩 6주~15주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시험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완산구는 지난해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을 통해 8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95%가 자격증을 취득해 여성 능력개발의 요람 역할을 특특히 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에 박천지 씨 추천

전주시립국악단을 이끌어갈 제3대 상임지휘자에 박천지 국립극장 문화동반자 음악감독 겸 지휘자가 임용후보자로 추천됐다.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는 최근 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선정을 위한 제3차 추천위원회를 열어 박천지 음악감독 겸 지휘자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서울예술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서 타악과 작곡, 지휘를 전공했으며, 중앙무형문화제 제20회 태평무(악사) 이수자이기도 하다. 그는 전통 타악기 연주자로 시작해 작곡과 지휘를 공부하고 오랫동안 연극과 무용, 재즈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으로 얻어낸 음악적 성과들을 전통음악에 담아 표현해왔다.

시는 임용후보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 채용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25일 박 후보자와 채용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부안 성모·혜성병원 직원 나누미근장학재단 후원회 참여

부안군 부안읍 소재 성모병원과 혜성병원 임직원 40여 명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부안군 나누미근장학재단 후원회에 참여, 부안군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다.

성모병원 전창식 대표와 혜성병원 주세혁 대표는 "지역의 의료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약속했다.

한편 혜성병원은 지난 1988년 10월 개원해 주세혁(신경외과 전문의) 대표를 포함한 8명의 의사진력이 신경외과,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7개 진료과목을 진료하며 33개의 입원실과 130병상을 보유하고 수술실과 CT·MRI 촬영실, 종합검진센터, 응급실 등 의료시설을 갖추었다.

부안 성모병원은 2007년 12월 개원해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임상병리과, 산부인과 등 9개 과목을 진료하고 있으며 65개의 입원실과 297병상을 보유하고 수술실과 CT·MRI 촬영실, 종합검진센터, 응급실 등 의료시설을 보유한 종합병원이다. /부안=이옥수기자

최식배 무주 주계파출소장, 4대 사회적 근절 홍보

무주경찰서 주계파출소 최식배 소장은 지난 9일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적 근절을 단호하고 행락한 무주를 만들기 위해 무주읍 사회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최 소장은 4대 사회적 예방 홍보와 전단지 배부하며 "무주는 4대 사회적 근절에서 앞장서야 하는 것을 각 단체장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봄철 어르신 교통사고(보행자)에 대해 사례를 설명하고, 무단횡단 등 위험성을 홍보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가천기업, 전주시 평화2동과 불우이웃 정기 후원 협약

평화2동 소재 가천기업(대표 권혁상)에서는 지난 7일 관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60만원의 정기 후원을 약속했다.

가천기업은 지난 40여년간 농협, 하림 등을 상대로 사료원료를 납품해 온 우수 기업체로 지역내 불우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평화2동 심규문 동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매월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해준 가천기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정 등 소외된 이웃에 힘이 되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월 23일 등록(월간)	
	등록번호 전북가00016	(우)150-9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 222-4층 (세노빌)	
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종인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396	고창지사 569-6989
010-9965-4418	인후지사 249-6865	김제지사 547-6865	임실지사 010-9942-275
남천지사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665	진안지사 433-3064
010-2333-4791	물북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4986	정읍지사 539-3767
서산지사 272-9477	군산시 446-1167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62-9157
호남지사 010-985-9835	익산시 858-993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100-406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